

## 제이어스, 러빙워십의 파워풀한 찬양, LA에 울려 퍼져!

“이 도시의 주인은 예수님” 선포  
 무너진 세상 가운데 주님 오소서

교회와 교파를 넘어, 남가주의 청년들과 크리스천들이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되어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했다.

러빙워십과 제이어스의 연합콘서트 예수아(YESHUA)가 12월 17일(주일) 오후 7시 LA 다운타운에 있는 노보 극장(Novo Theater)에서 개최됐다. 교회에서 단체로 관람은 관객들을 비롯해, 목회자들도 자리에 함께 했다. 1천 5백여석의 객석이 가득 찬 가운데 조셉 리 목사(러빙워십 대표)는, “일반 교회가 아닌 극장에서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했지만, 기도하니 방법이 보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제이어스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Beautiful Saviour’, ‘What A Beautiful Name’,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와야’, ‘성령의 바람’ 등을 찬양했고, 러빙워십이 ‘Joy to the World’, ‘샬롬’ 등을 부르고, 제이어스와 함께 ‘Keep on Fighting’, ‘성령의 불타는 교회’ 등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열기로 콘서트 장을 가득 매웠다.

제이어스의 김준영 대표는 공연 중간에 진



제이어스와 러빙워십의 연합콘서트 예수아(YESHUA)가 17일(주일) 저녁 7시에 엘레이 다운타운의 노보 극장에서 개최됐다. ©기독일보

정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진정한 삶의 만족이 되는 분이 누구인가를 간증하며 “이 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이 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주십시오. 무너진 사회 가운데 깨어진 가

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예수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고, 관객들이 기도에 동참했다.

“성경에 목이 말랐던 한 여인이 등장한다. 예수님에 대해 들은 적은 있었지만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삶의 목

적이 무엇인지 몰랐고 남편에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걸었다. 안정된 가정을 이뤄서 사랑받는 것이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의 목적이 뒤집어졌다.” → 2면에서 계속

## 美 연합감리회, 5년간 7,658개 교회 탈퇴 ... 1/4에 해당

이달 말까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최근 5년 동안 회원 교회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교단 탈퇴 허가를 받았다고 릴리 전뉴스서비스(RNS)가 최근 보도했다.

연합감리교회(UM News)의 집계 따르면, 올해에만 5641개의 교회가 지역 연회로부터 교단 탈퇴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이후 7658개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탈퇴 교회의 대부분은 교단이 동성결혼 축복과 공개적인 동성애자의 안수를 금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보수 성향의 교회들이며, 내년에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특히 8년 만에 열리는 교단 차원의 입법 모임이 2024년 봄에 예정되어 있으며, 결혼과 안수에

관한 정책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BP는 전했다. 또한, 해외 교회를 분권화하거나 미국 교회와 동일한 탈퇴 옵션을 제공하는 두 가지 대립적인 제안에 대한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UMC는 2019년 기준으로 3만 543개의 미국 교회와 2021년 기준 6백만 명의 미국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UMC는 미국의 95% 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이는 다른 어떤 종교 단체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탈퇴 교인 중 일부가 다른 UMC 교회로 이동하고 있어 회원 탈퇴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는 없다. UMC 관계자들은

이미 교회 수의 감소를 예상하며 교단 기관에 대한 역사적인 예산 삭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UMC는 2019년 기준으로 해외에 7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보수적인 교회가 많은 지역에 속해 있다.

이 매체는 2024년 4월과 5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예정된 입법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보수층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동성결혼 축복 및 동성애자 안수 금지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의원들은 교단 내 진보 진영이 선호하는 분권 계획뿐만 아니라 (미국과 해외 교회가 안수 및 결혼식 축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해외 교회가 미국 교회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고려할 것이라고.

RNS 보도에 따르면, 세계감리교회(GMC)의 최고경영자인 키스 보에트 목사는 “현재까지 약 4100개의 미국 교회가 등록되었다”며 “이는 이전 UMC 교회와 UMC에 남기로 투표한 교인들이 조직한 새로운 교회들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미국 교회가 탈퇴할지는 불분명하나 다수의 교회가 교단 체제의 일원이 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에트는 전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 연말연시 작은 나눔을 실천하세요

World Share USA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로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전쟁 구호 현장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 현장

작은 나눔으로 절망과 공포의 땅에 희망을 선물하세요!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 나성영락 50주년, 성탄 열차 타고 구원 향해!



나성영락교회 창립 50주년 성탄 뮤지컬 'THE YN CHRISTMAS EXPRESS'. ©기독교일보

올해 창립 50주년인 나성영락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성영락교회 유아부부터 고등부, 뉴빌이 참여해 창립 기념 뮤지컬 'THE YN CHRISTMAS EXPRESS(원제: X-MAS TRAIN)'를 선보이며 50년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다.

총 150명의 인원이 참여한 이번 뮤지컬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연기, 앙상블, 키즈 앙상블, 밴드, 홍보, 백스테

이지 팀으로 나누어 3개월 동안 준비했다. 제시카 원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김원일 장로가 기도하고, YES 팀(영락교육지원센터: Young Nak Education Support)과 영아부의 공연 후 뮤지컬이 시작됐으며 박은성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뮤지컬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다녔지만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야 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던 학생이, 우연히 구원 열차에 탑승하게 되었다가, 암송역, 욱심역, 베들레헴 역 등에 정차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던 중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주디 한 기자



## ANC온누리교회, 사랑나눔 열두 광주리 후원금 전달



ANC온누리교회는 12/16(토) 오전 9시 교회 본당에서 사랑나눔 열두 광주리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ANC온누리교회

ANC온누리교회는 12/16(토) 오전 9시 교회 본당에서 사랑나눔 열두 광주리 후원금을 각 단체에 전달했다.

ANC온누리가 시행하고 있는 열두광주리 캠페인은 지역사회봉사단체 및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사역으로, 올해로 5회를 맞는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단체들에게 적은 물질이라도 후원하여 함께 동참하

고자 하는 ANC성도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사역이다. ANC 온누리교회는 지난 11월 19일(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지난 11월 30일(목)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열두광주리 팀장 김종욱 장로는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10만불이라는 예산으로 소외된 계층과 여러 단체들을 섬길 수 있었다. 올해도 소외된 계층과 여러 사역 단체들을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과 기도로 할 수 있

었다. 저희는 단체에서 연락을 주시면 일회성이 아니라 1년 내내 협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한 가족이다. 한 마음으로 2024년에도 열심으로 사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열두광주리 캠페인에는 밀알선교회, 샬롬장애인선교회, 미주복음방송, LoveN-Care, Loving Hearts, Accompany Worldwide, ALTOGETHER IN LOVE,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Heroes of Life, Avenue of Pregnancy Clinic of SC, Making it Happen 총 12기관이 1차로 선정되었으며, 한미여성회, L.G.E.S, Bridgeway Family Life Center, Above All Athletics, 야콥의 우물가, GNDM, Potters House Skid Row, Rock Project, PC Bible Mission, Fountain of Hope, Pleasing All Foundation, Almond Tee Mission, 총 12개의 기관이 2차로 선정되었다. 토마스 맹 기자

→ 1면 기사 'J-US, 러빙워십...'에 이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였다. 저는 K-pop 인더스트리의 연주자였다. 저를 위해 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 수영장이 딸린 나이트클럽에서 파티를 하면서 멋진 차를 타면서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리 제 삶은 공허가 깊어졌다. 세상의 가치를 쫓았지만 그것은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그분의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세상을 쫓아갈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만족과 열정이 찾아왔다. 그분에게서 돌아선 심령이 있다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는 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7월의 아스팔트 열기를 이기고 158만명이 모였던 엑스플로 집회(엑스플로 74는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개최된 부흥 대사회. 이후 한국교회는 하루에 6개씩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1년 만에 110만 명이 성장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언급하며, 그들의 기도와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여의도 광장에서 무릎을 꿇은 지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내 아들 딸을 살려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가난했고 희망이 없던 그 시대, 예수 아니면 안된다고 무릎을 꿇었다. 50년 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분들을 안고 기도했더니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잊으면 안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있노라 고백했다. 이제 는 우리의 차례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모두 살기 어렵다 하고 좌악으로 가득찬 시대이지만 길은 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할 때 방법을 가진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러빙워십과 제이어스의 연합 콘서트 예수아(YESHUA)는 오는 12월 22일과 23일 7시에 애너하임 네셔널 그로브 극장(Anaheim Grove National Theater)에서 이번 콘서트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티켓 구입: [ticketmaster.com](http://ticketmaster.com)  
문의: 이용주 본부장 (714) 345-7532 토마스 맹 기자

## 페트라대학교 가을학기 종강, 봄학기 학생 모집

페트라대학교(Petra University · 총장 김정호 목사)가 지난 15일(금) 오후 7시 30분 조이풀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2023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정호 총장이 '바른 신학도의 자세'(딤후 3:14-17)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다.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 Petra University는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2024 봄학기 학생모집(B.Th, M.Div, D.Min)을 모집하고 있다. 유학비자가 가능하며 문의는 213-210-3877, [www.petrauniversity.org](http://www.petrauniversity.org)로 하면 된다.



# ETERNAL LIFE CHURCH (ELC)

## 영생교회 취임 감사예배

### 담임 김재연 목사

집례 : 송정명 목사 | 설교 : 지용수 목사

일시 : 2023년 12월 23일 (토) 오후 3시

장소 : 영생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510) 605-7773 · (818) 730-1947

- 영생교회 당회 및 교우 일동 -



- 복음주의 장로회 증경총회장
- 세계비전교회 설립 및 건축
- 전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 전 평통중교분과 위원장
- 전 칼빈 대학 총장

# 김영길 목사 인터뷰, “목회의 턱을 넘기 힘든 분들 돕고파”

1983년 세 가정을 데리고 개척한 교회에서 갈등으로 인한 분열을 겪지 않으며 35년간 목회를 해온 한 목사의 음성에는 후배 목회자들,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작하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향한 자상함이 서려 있었다. 그 자상함으로 인해 물릴 수도 있었지만, 후배 목회자들을 향한 충고를 전할 때는, 두루뭉술한 빈말이나 회망고문하는 근거 없는 소망은 일체 입에 담지 않았다.

인터뷰어가 이번 인터뷰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는 먼저 잘못된 명칭을 지적했다. “작은 교회 보다는 시작하는 교회라고 부르고 싶다. 모든것은 싹이 나는 것처럼 커질 텐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클지 어떻게 아나, 작은 교회라고 붙여 놓으면 누구보다도 목사님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그렇게 규정해 버린다.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이 소망을 주는 명칭인가 틀에 박히게 하는 명칭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면 좋을 거 같다.”

2018년 5월 김영길 목사는 8년간 교회 청년담당 부목사로 사역한 구봉주 목사에게 목회의 바톤을 넘겨주었다.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기자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은퇴 후 원로 목사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였다.

### -은퇴한 이후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은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사역이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남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주신 은사라고 그럴까, 나의 장점이 무엇 일까를 찾아 내는 것이고 그것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아야 찾아 낼 수 있는 것이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과거에 신앙계라는 월간지를 7년 동안 편집하고, 연구소를 세워서 만 3년 동안 평신도 훈련을 했다. 세계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글을 쉽게 쓰고 글 쓰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은퇴하고 나서 뭘할까 생각하는데 설교할 때 마다 짧은 텍스트를 가지고 현재 삶과 컨텍스트에 연결지어 설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제한된다. 성경을 최소한 한 권씩, 혹은 유사한 내용의 성경을 한 두 권씩 묶어서 전체 숲을 보듯이 성경을 읽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지식은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 그제 내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이기도 했다. 그래서 책 제목을 ‘가슴으로 읽는 성경’이라고 했다. 목사는 직업으로, 학문적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보려 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왜 죽어가는 딸을 고쳐 달라는 회당장 이야기 중간에, 열두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성경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압축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빈 공간을 채우도록 허용하고 있다. 잘못된 해석만 아니라면, 다른 성경의 내용에 비춰서 가능한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상상 할



감사한인교회에서 35년간의 목회하고 구봉주 목사가 취임하면서 2018년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한 김영길 목사(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는 은퇴 후, 평생의 유업으로 느낀 집필 작업에 열중하며 <가슴으로 읽는 성경>시리즈를 8권까지 펴냈다.

수 있다. 모든 것이 가슴으로 읽다보면 낯설고 씨줄이 얽히듯 그 안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3가정으로 시작한 교회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다 해보았다.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 어떤 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 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그러면서 선교사역도 하고 있다. 그제께도 멕시코 추기성 선교사를 만났다. 20년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 있으면서 멕시코의 두번째로 큰 도시에 있으면서 거기서 4시간 차로 들어간 곳의 멕시코 원주민을 섬기는 사역을 하신다. 20여년 동안 등짐을 매고 산길을 다니며 수고하고 치과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선교사님이 과달라하라의 교회를 현지 멕시코 목사에게 맡기고 자기는 4시간 떨어진 곳에 들어가서 센터와 클리닉을 세워서, 목회자 훈련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 그곳 청소년들 13~14살에 엄마가 되기도 하고, 4명까지 아내를 두기도 한다. 챗GPT를 이야기 하는 시대에, 도시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10나라를 5년 반 동안 다녔다. 은퇴할 무렵에 10여년 동안 모은 칼럼으로 책을 냈고 가슴으로 읽는 성경을 썼다. 현재는 8번째 <로마서> 까지 썼다. 가슴으로 읽는 성경 첫번째 책 <창세기>가 영어 번역이 거의 다 끝났고 스페인어와 캄보디아어로 번역하고 있다.

세 가정으로 개척해서 35년 간 목회한 김영길 목사는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시작하는 교회들에게 자신이 목회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지혜,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한다.

“시작하는 교회는 부흥사를 초청할 여력이 없다. 또 자격지심이 들고, 작은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서 적극적으로 집회를 요청하지 않는다. 내 책 앞 페이지마다 이메일 주소를 넣고, 작은 교회는 방문해서 자비량으로 집회를 해드린다는 멘트를 적어 놓았다.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면 꼭 찬 느낌이다. 작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작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시작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즉 자기 존중을 확립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마음이 복잡하다. 경쟁 의식, 열등심으로 들고, 그런데 열등심과 우울감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교회이지 다른 교회들 앞에서 내 교회 아니니까. 5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3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우울감을 느끼고, 또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열등감이 든다. 시작하는 교회 목사님은 강하고 폭넓고 선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작하는 교회 목사님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교인들에게 엄매이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권위의 인물이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권을 지니고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의 눈치를 살핀다. 사실 부모도 자식이 권위의 인물이 될 때가 있다. 자식에게 엄매여서, 자식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교인들이 권위의 인물이 되면 안된다. 그러면 목회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오히려 교인에게 끌려가는 형태가 되고 만다. 특히, 시작하는 교회에는 고집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개성들이 강하다. 그들의 의견을 그냥 따라가다보면 결국, 회의감이 들고 그제 쌓여서 폭발하면 교회가 갈라진다.”

교회성장연구소의 한 목사는 맥가브란 박사와 피터 와그너에 의해 시작된 교회성장학이 한국에 전파되면서, 성장주의의 불꽃을 지켰으며, 2천년에 들어서면서 교회 성장이 둔화 혹은 감소하면서, 그 성장의 반작용으로 ‘교회 건강’에 대한 자각이 일어

났다고 썼다. 그러나 김영길 목사가 볼 때, ‘큰 교회=건강하지 않다’라는 공식은 잘못됐다.

“건강하면 씨를 심으면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과 성장이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여기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다만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성장이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 된다. 성장주의가 되면 아무리 올라가도 그 마음 속에 만족이 없다.”

“어느 정도까지 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콩을 심었는데 어느 정도 자라야 열매를 따먹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capacity)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더 어려운 일에 쓰신다. 아무나 2백만 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가? 모세는 2백만 명을 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보다 작은 능력을 지닌 다윗은 쫓겨다닐 때 겨우 5-6천명을 데리고 다녔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교회는 한번도 이벤트는 안했다.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이 여기로 오게 해야지’라는 의도로 이벤트를 한 적이 없다. 성장을 위주로 교회가 이벤트를 했다면 순수성이 사라진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로 가는데 살이 붙어서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살이 붙으니깐 선교도 활가차게 할 수 있고, 교회도 개척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틀로만 생각해서 큰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작은 교회는 건강한가? 아닌 경우도 있다. 크다고 다 잘못된 건도 아니다. 그것 보다는, 공식을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다’로 바꾸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부흥의 동력이다. 한국교회 안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교회 내에 카페를 만드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 와서 소통의 장소로 만들면 동네 사람들과 소통되어서 교회를 다나올 줄 알았다. 요즘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사회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이다. 3만 달러, 5만 달러 연소득의 국민과 3천 달러, 2백 달러, 5백 달러 연소득의 국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국민들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그들이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열망이 마음 속에 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이 언제 가치가 있는가. 아주 근원적 질문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도 똑같고 구원의 메시지도 똑같다. ‘너희 속에 천국 없지?’ ‘맞아요,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천국 갖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하라’, 예수님은 그렇 접근하셨다.” (다음호에서 계속) 주디 한 기자

## 2024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일정  
원서 접수 마감 : 1월 19일(금) 까지  
개 강 : 2월 5일(월) 부터

입학문의  
☎ 입학처 (백옥경 과장) : 714)525-0088  
✉ admissions@gm.edu  
MORE INFORMATION : www.gm.edu  
1645 W.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입학 절차

1. 원서접수  
www.gm.edu에서 Apply 메뉴 클릭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서류 제출

3.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진행

학사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철학 (PhD ICS)
- 교육학철학 (PhD ES)
- 상담심리철학 (PhD CS)

찾았다!

내가 꿈꾸던 대학

그레임션대학교

입학특전

- 유학생 1-20 발행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수여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유자 (FSA)
-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 미국 유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 코너스톤교회, 성탄절 콘서트 'The Greatest Gift' 개최

하버시드에 있는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는 가장 캄캄하던 시기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reatest Gift>를 개최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종용 목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생”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각 팀이 'Gloria', '예수 나의 기쁨 되신 주', 'When I Think Upon Christmas', 'Christmas Day' 등을 찬양했고, 이 목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순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간증했다.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는 12월 17일(주일) 'The Greatest Gift'라는 제목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다. ©유튜브 스크린샷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셨다. 그런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시다. 75년도에 '나'라는 노래를 불렀고 3월부터 12월까지

이 곡이 일등을 해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가요 역사상 가장 1등을 많이 했다고 해서 MBC에서 순금 트로피를 받았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윤희주 장로, 이장희 씨, 저세 명이 마약 수사본부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했다. 그날 저녁 저는 서

대문 구치소에 갇혔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120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 200명의 죄수들 앞에서, 윤희주 장로와 같이 아무 것도 입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 인격이 땅에 떨어지고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모

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3명을 살해한 젊은 사형수가 제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찬송, 기도,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함께 성경을 읽다가 저의 모습을 발견했다. 저는 제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취보니 죄악 덩어리였다. 내가 한 말들, 생각들, 눈으로 본 것들 음란했고 시기질투로 가득 찼고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이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인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가슴을 찢는 통곡을 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제 마음에서 오셔서 두 팔을 벌리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셨다. 온 인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

다. 제 마음에 엄청난 평화와 은혜가 임하는데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참 평화였다. 그때 저는 27세였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시길 원하면 저를 써주세요. 27년을 살았던 삶이 정말 허무한 삶이었다. 그때 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후 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 예수역을 맡아 249회 공연을 하게 된다. 예수역을 소화하기 위해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텍사스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하나님께 미처서 세상을 거부했다고 회고했다. 이종용 목사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 가실 것이다.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주디 한 기자

## 라스베가스교협, 회장에 임인철 목사 선출



라스베가스교협 임원들 ©기독교일보

올해 30주년을 맞는 라스베가스교회협의회(이하 라스베가스 교협)가 지난 14일 오전 11시 은혜와 사랑의교회(담임 박은호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인철 목사(라스베가스중앙교회 담임)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 박은호 목사, 총무에는 이병걸 목사(라스베가스제일침례교회 담임), 서기에는 이정환 목사(라스베가스커뮤니티교회 담임)가 각각 임명됐다. 지난회기 회장으로 섬겼던 강일진 목사(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담임)는 회계로

섬기게 된다.

신임회장 임인철 목사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라스베가스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아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역 사회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로 알고 성심껏 감당하겠다”면서 “목회자들간의 연합과 친목을 다지고 교회 연합행사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라스베가스교협은 목회자와 사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친선 볼링대회와 가을 여행 등 목회자 부부 친목 모임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마다 진행해 온 부활



지난회기 회장 강일진 목사(좌)와 신임회장 임인철 목사(우) ©기독교일보

절 연합새벽예배와 연합부흥성회, 유스연합수련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강일진 목사의 인도로 박은호 목사가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5:9-10 절을 본문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임인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강일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회원 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후에 사업보고(오동석 총무), 감사보고(임명진 감사), 회계보고(임인철 회계)가 있었다. 이어 임원선거를 통해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회의록 채택 후에 회장이 폐회를 선언했다. 모든 순서는 임인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조셉 리 기자

## 남가주 사랑의교회 17기 사랑장학금 수여식



17기 사랑장학생들과 관계자들.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산하 사랑장학회(후원회장 이교식·이사장 노창수 담임·이사장 사랑장학회)는 지난 10일 2부와 3부 예배시간에 교회 본당에서 제17기 사랑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정된 120명의 학생들은 1인당 2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노창수 목사가 설교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교인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17기 장학생들은 교인 자녀 30%, 타교회 자녀 35%,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국외 선교사 자녀, 선교사

에서 선교사 추천 학생 등이 있었다. 이교식 회장은 “2024년 18기 장학생은 내년 5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치고 7월말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2024년도 장학생 신청은 내년 5월에 kdsfsarang.com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는 미국 내 정규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진학 예정자로, 학업 성적보다는 좋은 인성과 올바른 비전을 지녔으며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밤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나도 아직  
골똥 탄다!



젊음도 부럽지 않은  
**활기찬 노년**을 위해  
 내년에도 **센터메디컬그룹**이  
**건강한 나날**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 수영로 이규현 목사 “목회 외에는 무섭게 잘라내라”



‘야회 그리운 나무 그늘’(대표 전광식 목사) 제1회 포럼이 18일부터 20일까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한국 복음주의 목회의 세대 계승’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가 19일 목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했다. ©가평=송경호 기자

정필도 목사의 후임으로 부산 수영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규현 목사가 한국교회 차세대 목회자들을 향해 ‘심플 라이프’를 강조했다. 목회 외적인 것은 ‘무섭게’ 잘라내고 목회자 자신이 간 길을 성도들이 따라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참된 목회자라고 했다.

‘야회 그리운 나무 그늘’(대표 전광식 목사) 제1회 포럼이 18일부터 20일까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에선 ‘한국 복음주의 목회의 세대 계승’을 주제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오정형 목사(사랑의교회),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전광식 교수(전고신대 총장) 등이 ‘목회’를 주제로 자신만의 철학을 한국교회에 공유했다.

### 설교, ‘잘하는 것’ 보다 정성이 중요

이규현 목사는 둘째 날 오전 ‘목사, 설교의 고민-복음주의 설교’를 주제로 발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목회자들의 궁금증에 진솔하게 답했다. 이 목사는 목회를 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저의 유일한 어려움은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곧 3주간 특별새벽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가끔씩 강사를 세우지 않고 ‘집밥’을 먹인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오늘처럼 강의하러 오는 것도 약간의 ‘외도’와 같다. 완전히 말씀 사역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국내외 집회는 거의 끊어낸다”고 했다.

이 목사는 설교 준비의 노하우도 공유했다. 그는 “저는 철저하게 주중에 설교를 상당히 완성한다. 월·화요일에 집중력을 갖고 설교 준비를 한다. 오전에는 설교와 관련된 책들도 주로 읽는다. ‘철야설교’도 포기하지 않는데, 설교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오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교는 ‘잘하는 것’보다 정성이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 새벽 영성, 코람데오의 신앙

개인적인 영성 관리에 대해선 ‘새벽 영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기도의 자리는 생명을 지키는 자리”라며 “정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한다. 단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바리새인의 모습,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매일 매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은 다루기 쉽지 않다. 새벽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욕망이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한 뒤, “새벽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힘쓰는 영성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교회는 쇠퇴한다고도 했다. 그는 “주일 강단은 전쟁터와 같다. 한 주간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온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 활기와 열기,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도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싸움이다. 컨텍스트를 계속 읽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경 앞에서 목사는 무료해진다. 성도들은 피와 땀의 살육의 현장에 있는데, 목회자는 서재에만 있으니 거리감이 생기고 허공을 치게 된다. 특히 큰 교회 목회자와 부교역자들은 영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기에, 새벽에 더욱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고 했다.

### 독서하는 목회자, 10년 후 다르다

독서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책을 계속 읽는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는 “당장 목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서적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책을 골라라. 당장 표는 나지 않지만 목상이 깊어진다”며 “A4 용지

한 페이지로 축약해내는 글쓰기를 반복하면, 자신의 언어를 완성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자기 교회를 살리는 것, 내가 맡은 목장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자기 교회를 살리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한 교회를 살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영성의 핵심 중 하나는 ‘심플 라이프’다. 즉 무섭게 가지치기하는 것”이라며 “(수영로교회에) 부임하고 나니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것을 잘라냈다. 욕도 먹어가면서 무섭게 잘라냈다. ‘무조건 내가 맡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 이것이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영성을 가진 목회자다. 사심도 욕심도 없는 신실함이다. 목사스러움이 아니라 목사다움”이라며 “자신이 걸어간 길을 교인들이 따라와도 괜찮을 것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된 목회자”라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자신과 같이 이민 목회를 마치고 국내 사역으로 전환한 목회자들에게 조언의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이민 목회는 험한 곳이고, 그 경험은 굉장한 자산이다. 철저한 섬김의 개념 없이는 목회할 수 없고, 이민자들은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기에 분노가 있고 거칠고 잘 싸운다. 하지만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라는 점은 같다.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나 통하니 기본기를 분명히 다져라”고 전했다.

이어 “빨리 성장시키려는 마음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기에 인간적인 방법론이 너무 많이 들어와 오염돼 있는데, 계속 사위하고, 둔탁하지만 원론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당부했다. 송경호 기자

# 독일 추기경 “오늘날 서구 사회, 예수님도 투옥될 것”

독일의 한 추기경이 최근 인터뷰에서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예수님도 ‘생물학적 성별과 전통적인 결혼을 긍정했다’는 이유로 투옥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루트비히 뮐러(Gerhard Ludwig Müller) 추기경은 GB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 ‘부모와 자녀의 가정’을 상대화하거나 심지어 파괴하기 원하는 이러한 방식에 이념적으로 반대하신다”고 했다.

뮐러 추기경은 마태복음 19장을 언급하며 “바리새인들이 결혼 문제에 관해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나,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과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확인하심으로써 이를 물리치셨다”고 했다. 그는 “난 오늘날 예수께서 단지 메시아라

는 이유만으로 정죄받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은 캐나다, 미국, 유럽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관한 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투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뮐러 추기경의 이러한 발언은 가톨릭교회의 상황에 관한 GB뉴스 진행자인 리스-모그의 질문 때문에 나왔다. 특히 조셉 E. 스트릭랜드(Joseph E. Strickland)가 텍사스주 주교직에서 해임되고 타일러와 레이몬드 버크(Raymond Burke) 추기경이 급여와 바티칸 아파트를 박탈당한 이후 나왔다. 이 두 전통주의자 모두 프란치스코 교황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들이다. 2014년, 교황은 버크 추기경을 2008년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임명됐던 바티칸 최고 법원인 사도 서명 최고 재판소의 재판소장 직위에서 해임했다. 버크 추기경은 경신



게르하르트 루트비히 뮐러 추기경은 최근 인터뷰에서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예수도 성경적 결혼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투옥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GB 뉴스 보도화면 캡처

성에서도 직위를 잃고 몰타 주권 군사 명령에 대한 후원도 잃었다. 지난 11월 20일 당시 바티칸 사무실 수장 회의에 참석한 한 소

식통에 따르면, 교황은 “버크 추기경은 나의 적이 때문에 그의 아파트와 급여를 압수한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일보

주최: 기독교일보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Tel (213)739-0403    chdailyreporter@gmail.com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2등	3등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 동양선교교회 예배안내

2024년 1월부터 다음의 시간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일 1부예배	AM 07:30	본당
주일 2부예배	AM 09:30	본당
주일 3부예배	AM 11:30	본당
주일 4부예배 (토브이 젊은이예배)	PM 01:30	비전센터
교육부 주일학교	AM 11:00	교육관 3층
교육부 중고등부	AM 11:00	비전센터
교육부 소망부	AM 11:0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AM 0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ONLINE (온라인)	
수요기도회	AM 10:00	본당
토요한국학교	AM 10:00	교육관 3/4층
OMC Preschool	AM 08:00	교육관 1층

**동양선교교회**  
The Oriental Mission Church  
[www.omc.org](http://www.omc.org)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omcoffice1@gmail.com | 323-466-1234

## 기쁘다 구주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진유철 담임목사**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www.lafgc.com](http://www.lafgc.com)

### 예배안내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본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본당
영아부예배(0-2세)	주일오전 9:30, 11:30 영아부실
유치부예배(3-5세)	주일오전 9:30, 11:30 유치부실
유년부예배	주일오전 9:30(영어), 11:30(한국어) 구교육관
WG영어중고등부 예배	금요일 오후 7:30(AWANA) 구교육관
JVT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영어중고등부실
MIG청년교구 예배	주일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한어중고등부실
EM예배	주일오전 11:30 본당
실버드림대학	주일오전 11:30, 수요일 오후 7:30 EM예배실
토요한글학교	목요일 오전 9:00 신구교육관
	토요일 오전 9:30 신구교육관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 Tel. 323-913-4499  
lafgcusa@yahoo.co  유튜브 채널 - '나성순복음교회' @LAFGCTV

## 기쁘다 구주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손창민 (Rev. Changmin Son)**  
담임목사



**최홍주 (Rev. Hongju Choi)**  
원로목사

[www.churcheveryday.org](http://www.churcheveryday.org)

**Worship Hours**

주일예배 1부 8:00am 본당  
주일예배 2부 9:30am 본당  
주일예배 3부 11:15am 본당  
교육부 (영아부 - Roots 중고등부)  
1부 9:30am, 2부 11:15am 각 교육부실  
EM (Grace Life) 9:30am 차동석홀  
CEYA(한어청년부) 11:15am CEYA 예배실  
KARDIA(영어청년부) 1:30pm 교육관 3층  
향기마을 11:15am 향기마을 예배실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7:30pm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5:30am 본당

**Address**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Fax: 818-368-0089  
info@churcheveryday.org





밸리채플

OC 채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주일3부(영어예배)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최혁 담임목사 | iccc.office1@gmail.com | (818) 363-5887

www.lcccla.org

오후7:30 수요영성집회

오전5:30(월-금) 새벽예배  
 오전6:00(토) - Zoom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OC채플: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기쁘라 구주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김종규 담임목사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3부 청.장년예배 오전 11:30  
 English Service 주일 오전 10:00  
 유치, 유년, Youth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12:00  
 장년새벽기도회 평일(월~금) 오전 5:30  
 주말(토~일) 오전 6:00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EL: (714)899-9191




축 성 탄



## 다우니제일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College 주일 오전11:00



지영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el)562-861-1004 downeyfirstchurch@gmail.com



## 올림픽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이수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055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olympicch@gmail.com



# 프랭클린 그래함 “교황도 죄 축복할 권리는 없다”

## 동성 커플 축복 허용한 바티칸 비판

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화)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의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이러한 ‘축복’이 당신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및 사마리아너스 회장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 지도자들의 소위 말하는 ‘축복’은 당신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가톨릭 사제들의 동성 커플 축복을 승인했다. 그러나 교황을 포함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죄라 부르는 것을 ‘축복’할 권리는 없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사 5:20)”라고 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조건에 따라, 즉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아들인 주 예수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BGEA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불법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리라’(사 1:28 )라고 말씀하

고 있다”고 했다. 그래함 목사의 논평은 바티칸 신앙교리성이 “예배적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축복에 대한 고전적 이해를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는’ 간구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바티칸 측은 “이러한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교회의 영원한 결혼 가르침을 바꾸지 않고도, 변칙적인 상황에 있는 부부와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선언문은 주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긴 수많은 몸짓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머니 교회의 축복을 구하러 오는 충실한 하느님 백성에게 바치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사람들이 축복을 구할 때 철저한 도덕적 분석을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축복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도덕적 완성 이 먼저 요구돼서는 안 된다. 동성 커플의 경우, ‘상향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

라 자신의 공핍함과 하느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 등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선언문은 그러면서 “변칙적인 상황에서 부부의 축복을 위한 의식을 제공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사람들이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앙교리성이 2021년 발표한 선언문에는 “하느님은 ‘죄를 축복하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동성 결혼을 축복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에 행위는 죄라고 가르친다.

지난달 바티칸 신앙교리성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나 이성 호르몬을 복용한 사람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강해진 기자

# 미드웨스턴 74회 졸업식, 한국부 31명 졸업

## 총 64개국에서 250명 졸업 2023년에 한국부 51명 졸업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지난 8일, 캔자스시티 캠퍼스에서 74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74회 졸업식에서는 총 64개국에서 25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국부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8명, 목회학박사 5명, 교육목회학박사 1명, 교육학 박사 3명, 목회학석사 8명, 기독교교육학석사 3명, 신학연구석사 2명, 사모학교 1명 등 총 31명이 졸업의 영예를 얻었다. 지난 5월에 졸업한 20명을 포함하면 올해 51명이 졸업했다.

김은총 목사(성경사역학 철학박사과정)가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파의 침례론을 비교 연구를 통해 교회의 거룩성과 침례의 유효성”에 대한 논문을 통해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목회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견해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교회론과 성례론을 문제로 지적하며, 3-5세기 북아프리카의 교회론과 성례론을 통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방호 목사는 “유대 목시적 세계관에서 비취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2절” 연구를 통해 어떻게 종말론을 바라봐야 하는지 연구했다. 조현우 목사는 “미주 한인 이민자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설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경 해석과 성숙한 신앙 생활의 방향을 제시했다.

미드웨스턴의 성경사역학 철학박사과정은 성경적 교회론의 실제적 지향을 위해 21세기 문화 속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



미드웨스턴도 74회 졸업식 ©미드웨스턴

회와 문화 모델을 현장 목양사역과 학문적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졸업생의 수준 높은 논문들을 통해 현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교회상을 제시하는 학위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독교 교육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임희영은 “미드웨스턴의 학업은 목회 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배움”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의 인가를 갖추고 있다. 특별히 한국부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교육학박사, 교육목회

학박사, 목회학박사 등 네 개의 박사과정과, 목회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신학연구석사, 성경상담학석사, 사역학석사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2023년에는 신학연구석사-예배사역학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통한 건강한 사역자 양성을 이어갈 것이다.

현재 한국부는 재학생만 720여 명으로 북미에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과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탁월한 교수진과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있다. 학교 입학에 관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mbts.edu/ks) 또는 한국부 사무실(김윤주 팀장; ks@mbts.edu)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미드웨스턴대학 제공

## 아주사 퍼시픽 대학 주최 설교 세미나 THE WORD THE CHURCH

**THE WORD, THE CHURCH 설교 세미나**

**일정**

- 10 AM: 시작 기도, 찬양, 기도, 목회자의 영혼의 선포
- 11 AM: 신성육신 (김은총 목사, 조현우 목사, 임희영 목사)
- 12 PM: 점심 식사
- 1 PM: 목회자의 소명 (이방호 목사, 김은총 목사, 조현우 목사, 임희영 목사)
- 3 PM: Q&A

•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 장소: 베델교회 BCC 대강당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주최: AZUSA PACIFIC UNIVERSITY

• 참가비: \$20  
• 문의: 베델교회 (949)854-4010  
• 후원: 베델대학교

아주사 퍼시픽 대학이 주최하는 설교 세미나 'The Word, The Church'가 1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베델교회 채플에서 개최된다. 신성육신 교수(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부회장, 아신대 설교학 교수),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권혁빈 목사(Seed 교회)가 강사로 서, <설교, 역동적 복음 선포>, <코로나 19 이후 강단의 변화 및 신년설교 계획> 등 설교에 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참가비는 20달러이며 Q&A시간도 마련된다.

### 축 성 탄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 총회장 : 진건호 목사
- 부총회장 : 서사라 목사
- 총무 : 김선광 목사
- 부총무 : 이현욱 목사
- 서기 : 안선신 목사
- 부서기 : 김정한 목사
- 회록서기 : 조은혜 목사
- 회록 부서기 : 이영근 목사
- 회계 : 안정희 목사
- 부회계 : 김광진 목사
- 감사 : 강성수 목사, 엘리야김 목사
- 의장 : 김인철 목사
- 사무총장 : 엘리야김 목사
- 이사 : 주재임 목사, 강성수 목사, 박정희 목사, 박문석 목사, 진건호 목사
- 교단가입문의 : (213) 272-6031
- 교단사무실 :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총회장 진건호 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 LA동부사랑의교회

###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 주일예배 2부 오전 9:40
-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 EM(Holy Wave) 오전 9:40
- 한어대학청년부(드림청년부) 오후 2:00
- 금요영성집회 금 저녁 7:30
- 새벽예배 월~금 새벽 5:20



우영화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ESCC), eastsarangweb@gmail.com  
www.eastsarang.org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 수, 금) 오전 6시  
3부예배 (목, 금) 오전 11:30 (목-토) - 한평생영생예배  
대학청년부 (EM) 오후 2:00 수요일 (영성)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하고 이민2세를 복음화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ken 코너)  
T. (213) 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아라-NAWANA 주일 오후 2: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 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e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일성경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리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리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리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말씀강해 오후 7:00 (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가토)마침주요 오후 8:00  
종교개혁 주간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일(토)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수요일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신성모독 혐의' 나이지리아 여성, 징역 19개월 만에 보석 석방



(왼쪽에서) 다섯 자녀를 키우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로다 자타우가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ADF 인터내셔널

나이지리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5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한 기독교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추가형을 받게 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의료 종사자인 로다 자타우는 19개월간의 구금 생활 끝에 풀려나 현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 그녀는 2022년 5월, 서북부 소코토에 위치한 세후 사가리 사범대학 캠퍼스에서 기독교 여학생 데보라 사무엘 야쿠부가 폭행당하는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사건 당시 야쿠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거짓 비난을 받았다. 이후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에 의해 끌려 나와 폭행을 당했고 결국 불에 타 숨졌다.

그녀가 살해된 지 5일 후, 로다 자타우는 바우치 주립 1차 의료 종사자들의 왓츠앱(WhatsApp) 그룹방에 이 동영상 공유하며 야쿠부에 대한 살해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러자 자타우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공개했고, 2022년 5월에 그녀는 바우치 주 형법 제114조(공공질서 방해)와 210조(종교 모독)에 따라 기소되었다.

수차례 보석 신청을 거부당한 자타우는 국제 사회의 항의가 제기되자, 바우치 주 법원은 최근야 그녀의 보석을 허가했다. 자타우에 대한 재판은 이달 19일에 재개될 예정이나 휴일로 인해 2024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자타우는 현재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법률 대리를 받고 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의 법률 고문 셸넌은 성명을 통해 "로다 자타우가 오랫동안 보석을 거부

당한 뒤 마침내 보석을 허가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떤 사람도 평화적인 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 안 되며, 국제 종교 자유 옹호자들은 계속해서 로다를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다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고, 부당한 혐의가 완전히 철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유엔 전문가들은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신성모독죄 고발이 흔한 점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에 신성모독법이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었다. 5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서명한 이 서한은 자타우의 투옥이 "부당한 인권 침해"임을 강조했다. ADF 보고서는 또한 자타우와 야쿠부와 같은 사례가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5500명 중 90% 이상이 나이지리아인으로 밝혀졌다. ADF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신성모독을 범죄화하는 것은 나라 전체에 위험한 영향을 끼친다. 2억 명 이상의 인구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거의 균등하게 나누는 나라에서 신성모독법은 사회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요약했다. 야하야의 변호사인 플라 알리피니는 성명에서 "야하야에 대한 처벌은 나이지리아 헌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아서 안 된다. 우리는 야하야가 석방되고 신성모독법이 종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인도 기독교인, 반개종법으로 수백명 체포돼"

인도에서 기독교인 수백 명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종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됐다는 보고가 나온 후 소수 종교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UCA뉴스는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3년 전 법이 통과된 이후 398명의 기독교인(주로 개신교 목사와 교인)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목회자 27명을 포함해 42명의 기독교인이 심문을 위해 추가로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들은 거짓 수단으로 부족민과 취약 계층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검거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의 종교 서적과 노트북을 압수했고 2명은 공식 체포됐다.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지원하는 사역인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인도 정부에 28개 주 중 12개 주에 존재하는 '가혹한' 반개종법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며 "이 법은 강제 개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인도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릴리스 인터내

셔널(Release International)의 폴 로빈슨(Paul Robinson) CEO는 "이 법으로 인해 목회자들이 허위 혐의로 체포되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교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테러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목사들이 폭행 당하고 몇몇이 살해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경고는 북동부 마니푸르 주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폭력과 유혈사태가 발생한 후, 내년의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 로빈슨 대표는 "현재의 추세를 볼 때 인도 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증가할 것"이라며 "해마다 우리 파트너들은 인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개종금지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점점 더 편협한 사회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인도 정부가 소수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 확산을 방지하고 개종금지법을 뒤집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미지 기자

# 버스에 기독교 단체 광고 거부한 美 워싱턴 교통국, 소송 직면



©MJofLakeland1 유튜브 캡처

미국의 한 대중교통 기관이 기독교 단체가 제출한 광고를 자사 버스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하여 소송을 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기독교 기반 비영리 단체인 '월빌더스'(WallBuilders)는 지난 12일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WMATA)을 상대로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WMATA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문제에 관련하여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 또는 특정 종교, 종교적 관습이나 신념을 홍보하거나 반대하는 광고에 대한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월빌더스는 WMATA의 광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법률 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와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법적 지원을 확보했다. 이 소송의 피고는 WMATA 총괄 매니저 겸 최고경영자인 랜디 클라이다.

이 소송은 월빌더스가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 광고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후에 제기되었다. WMATA에 제출한 광고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펜실베이니아의 벨리 포지(Valley Forge)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기독교인입니까? 건국자들의 신앙에 대해 알고 싶다면 wallbuilders.com을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두 번째로 제안된 광고에는 미국 헌법 서명 사진을 배경으로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WMATA는 "광고 심의 패널은 첨부된 두 개의 제안 광고가 모두 상업 광고 지침 9에 의해 금지된다고 결정했다"며 "이 규정은 다양한 의견이 있

는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월빌더스는 그러나 "지침 9는 모호한 것으로 보이며, WMATA 버스 외부 광고에 모든 종교적 연설을 제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WMATA에 거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WMATA의 답변이 거절되자, 단체 측은 동일한 사진에서 "wallbuilders.com 방문" 초대 이외의 모든 문구를 생략한 수정본을 제출했지만 다시 광고를 거부당했다.

고소장은 "WMAT 지침 9는 '대중의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WMAT은 여전히 여러 논란적인 문제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종교적 실천과 신념을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여러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은 WMATA가 몰몬교와 일반 종교를 조롱하는 연극 '몰몬경(The Book of Mormon)'을 홍보하는 광고를 버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WMATA 버스가 미국 가톨릭 대학교(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를 광고했으며, 여기에는 "모든 이야기는 영혼의 여정"이라는 태그도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으로 확인된 WMATA 광고들이 있다"며 "다른 예로 지구의 날, JxJ DC 유대인 영화 및 음악 축제, 그리고 사회 정의 학교에 대한 홍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WMATA는 메트로 레일 역 중 한 곳에 "대법원에 입기 제한을 요구하라(DEMAND SUPREME COURT TERM LIMITS)"라는 구호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했다.

김유진 기자

# 美 고등학교, "임신은 여성만 가능" 오답 처리 논란



치프 실스 국제고등학교. ©구글맵

미국의 한 고등학교 시험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는 답안이 오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에 있는 치프 실스 국제고등학교 10학년은 약 2주 전 '젠더와 성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험을 치렀다. 그 시험은 학생들이 특정한 명제에 대해 '참과 거짓' 중 하나를 답하는 방식으로 출제됐다. 이 가운데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는 명제에 한 학생이 '참'이라고 답하자 교사가 이를 오답으로 처리한 것이다. 아울러 "모든 남성은 음경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에 '참'이라 답한 것도 오답으로 처리됐다. 해당 문제는 이 고등학교의 민족학 및 세계사 담당 교사가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교사가 '정

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을 학생에게 주입하고 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가르치고 학생에게 자기 신념에 반하는 답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합법적이나"고 반발했다.

이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답변을 거부한 이들이 자랑스롭다. 난 온건한 진보주의자이지만, 젠더 극단주의에는 반대한다"며 "아들은 여러 명의 교사로부터 '인종차별주의자',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애틀 공립학교 대변인은 "우리는 인종차별과 가부장제 등 권력 체계의 영향을 조사하는 등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장려하는 포용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해당 시험은 이를 다루는 주지방 지침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OC재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금요양육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월요일 5:30/토요일 6:00, 1814 Hines St., Northridge, CA 91321, 81838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교목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블라세(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머(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이가레움) 오전 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 7:30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이형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2성경연구회 오후 7: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정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P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영아부예배(화-금) 오전 5: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 www.cm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국교회/LA구국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 www.dongshin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요일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지영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아민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아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유아부 오후 1: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문화대를 세우고 목숨을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남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려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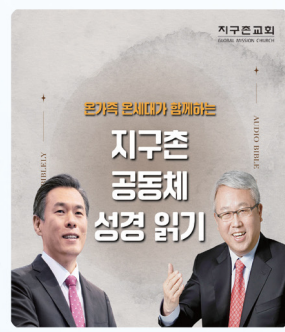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온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교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강준민 칼럼

# 기도하면 문제가 기적이 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앞부분이 다다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입을만한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가, 자기 형이 입던 옷을 가져다주었는데 그 옷이 정말 좋아서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옷을 잊지 못합니다. 가난했던 저는 교회에 가면 무릎을 꿇고 애절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습니 다. 저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드리면서 점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 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

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 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 의 능력과 보혈 찬송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 름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가 새벽 마다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목 사님은 제게 새벽중 치는 일을 맡기셨습니 다.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2년 동 안 새벽중 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마 다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문을 열고 불을 켜 고 새벽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중을 칠 수 있었습니다.

제 생애를 돌이켜 보면 기도와 더불어 살아 온 생애입니다. 물론 제가 다른 사람들 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다. 하지만 제 머리 속에 각인 된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도 새벽 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 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학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숙사비를 위해 기도했습니 다. 성적이 좋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 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기도했 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와 은혜를 구했 습니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한 후에도 새벽이면 모포를 뒤집어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 면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를 드렸습 니다. 교회만 가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 려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의지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와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가지고 온 돈 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옷장 하나 를 기도실로 만들어 그 옷장에 들어가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돌아가면 서 옷장에서 드리는 골방 기도를 기뻐하시 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 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너희 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 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 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전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저는 새벽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46편 5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 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 리로다”(시 46:5).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을 깨우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기도했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음모에 빠져 기가 막힐 운 덩이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는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 습니다. 새벽마다 강단에 오르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기가 막힐 수렁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셨습 니다. 저는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 험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특별히 강 조합니다.

한해의 끝자락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새벽 기도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십 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기적이 됩니다. 기도 하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 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시길 믿 니다.

김한요 칼럼

## 따뜻한 국밥 같은 사랑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어바인에 따뜻한 국밥집이 생겼습니 다.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기도 후, 아침 운동하고 뜨끈한 설렁탕에 몸을 데 우며 담소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영하 기온은 아니지만, 속살이 에이는 만 만치 않은 남가주의 겨울 날씨는 진한 고깃국물에 각두기를 말아 먹으면 아 랫목에 드러눕고 싶어집니다. 일주일에 두 번, 늘 새벽기도 끝나고

걷지만, 요즘은 걷기가 만만치 않습니 다. 추워서 그냥 웅크리게 됩니다. 옷 입고 나가는 것이 귀찮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나가면, 걷고 들어 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상쾌하고 몸은 가볍고, 그리고 제일 좋은 느낌은 배가 고프니다. 건강의 싸인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우리는 매번 이를 악물고 합니다. 걷고 오면 좋은 것을 아는 데도, 나가가기까지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냥 방 안에서 푸쉬업만 할까? 오늘 교회적으 로 바쁜 일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일부 터 할까? 그냥 아침밥만 먹으러 갈까? 수많은 잠생각들이 새벽 기도하며 스 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매번 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제가 나가야 우리 목회자 들도 나간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교 회가 건강하다. 내가 이겨내야, 우리

모두가 이긴다! 이 말들을 1-2분 되뇌 며, 마음을 바꾸고 추운 새벽공기를 가르며 걷다 보면 어느새 몸이 훈훈하게 달아오르고, 땀도 나고, 모든 몸의 세

### 사랑은 칼날 같은 결단 추운 겨울 새벽에 걷는 결단 서로를 향한 결단이 사랑

포들이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결단(decision making)이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코끝이 찡한 것이 아니라 칼날 같은 결단입니 다. 어쩌면 추운 겨울 새벽에 걷는 결 단이 사랑을 향한 걸음이라 할 수 있습 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딛는 걸음 에 훈훈히 달아오르는 몸과 건강이 다 가오듯이, 서로를 향한 마음도 이렇게

결단을 하면,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 게 모르는 척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과 연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돌아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는 결심 을 하는 순간, 사랑은 내 안에서 시작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이해(under-stand)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 단습니다. 추운 새벽, 걷기로 결심하는 순간, 따 따뜻한 국밥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 해가 지나가기 전 맘을 먹기로 해요. 다가가 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기다 리고 있을 것입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ga** MEDICARE OPTION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탕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http://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슬팍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김철민 장로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714)493-0191

###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8:00AM  
주일예배 2부 10:30AM  
주일학교 10:30 AM  
청소년 예배 10:30 AM  
English Service 2:00 PM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7:30PM  
새벽 기도회(월~토) 6:00AM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cometojx@gmail.com



이희문 담임목사

###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온라인 수요저녁예배 (수) 오후 8시  
새벽예배 월 - 온라인 오전 6:00  
화 ~ 토 - 현장 영상예배 (오전 6:00)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  
T. (213)386-2233

###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안병권 담임목사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

### 구세군나성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Youth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김성수 담임목사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90006  
T. (213)480-0714

###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초중고등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이황영 담임목사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 CA90710  
T:(310)326-0300

### 멜리데교회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새벽 6:00  
토 새벽 6:00



고귀남 담임목사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483-6625

### 미주양곡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213)380-9377

### 방주교회

주일예배 오후 12:00  
주일학교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김경규 담임목사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 새한우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1818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1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주일4부예배(청년)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 세리토스 충만교회

Fullness of Christ Evangelical Church

주일예배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20 (월~금)



김기동 담임목사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T. (714)262-1428

###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성요셉 담임목사

www.somangusa.co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 씨미밸리침례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EM예배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0: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45



반채근 담임목사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남재헌 담임목사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 은혜로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 주님세운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6: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박성규 담임목사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325-4020

###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금)



김성혁 담임목사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674-7966

### 갈릴리 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2212 S. Western Ave., LA, CA 90018  
T.(323)735-6412 / gmcchurch.com

### 밸리주하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저녁예배 오후 7:30  
Youth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5: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태훈 담임목사

8131 Tampa Ave, Reseda, CA 91335  
T.(818)794-0691

###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 Service Sunday 오전 11:00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회(월~토) 오전 6:00



이승혁 담임목사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989-4381

### 토랜스조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6:00



김우준 담임목사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 한마음제자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1:30  
금요 찬양기도의 밤 저녁 8:00  
새벽기도 (화-금) 새벽 5:30



곽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 한인소망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9: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수요 찬양기도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윤 목 담임목사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CA 90274  
T.(310)715-9902

진유철 칼럼

단호하고 적극적인 결단이 승리를 가져온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주선이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주선이 발사되어 처음 몇 분간, 몇 마일을 비행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은 그 후 며칠간 걸려 50만 마일을 여행하는데 드는 에너지의 양보다 많다..... 이처럼 우주선의 발사에 해당하는 시작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중

력을 뚫고 나가면 새로운 공간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때도 처음에는 에너지와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TV나 인터넷 보는 것은 쉬워도 성경 보는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먹고 노는 것은 결단이 필요 없어도 예배드리는 것에는 힘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좁고 힘든 길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일단 결단이 이뤄지면 평안이 넘쳐나고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특별히 운명을 바꿀만한 일에 있어서의 결단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단호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75세의 나이임에도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 단호하게 순종의 길

을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단호하게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참된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삼손은 들릴라가 유혹하며 계속 똑같은 질문으로 자기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죄를 떠나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니 불잡혀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멧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호하게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한 잔만 더 마시고 다음에 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담배 한 가지만 피고 다음부터 끊겠다는 말이나 노름이나 마약과 같은 것을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한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속임수요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은 떠밀려서 하

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결단으로 뿔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맹인까지 바다매오도 사람들이 핍박하여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결단으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12년 헬루병을 앓으며 남편과 가족 다 떠나고 이웃도 잃어버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옷 가에 손을 대고야 말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어떤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무능력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구봉주 칼럼

신앙의 명문 가정



구 봉 주 목사  
감사한교회

감사한교회에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섬기시며, 목회자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신앙의 명문가정에 자라셔서, 신앙의 뿌리가 깊으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심방 할 때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청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중에 "하나님, 저희 가정도 저런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저와 형님이 5살, 7살 무렵, 어머니께서 전도를 받으시면서부터, 믿음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대에 불신자 아버지의 핍박 가운데, 믿어서인지, 어머니와 저 그리고 형님은 영적전쟁을 알고 있고, 한 가정이 온전한 신앙의 가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인내와 같은 영적 대가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가정을 사랑하셨고, 신비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

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통이 다져지고, 눈물의 기도가 가득 쌓인 신앙의 가정이 저는 무척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 느낀 것, 그리고 보이지 않게 흘러내려 온 기도의 능력과 같은 영적 유산들을 어찌 가치를 다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명문가정은 최소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3-4대 이상, 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가정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라." 부모님 때의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인한 보응, 즉 나쁜 열매가 3-4대까지 흘러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상 때부터, 흘러 내려온 비신앙적이고 미신적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반대되는 전통과 문화 습관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정에 유증문화, 다른 이를 헐담하는 습관, 근면 성실하지 못한 가풍, 가족 간에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를 가진 가정의 역기능적인 문화와 전통 습관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신앙이 들어가고, 기독교적인 문화와 예배와 말씀 기도와 같은 영적 전통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대대로 말과 행동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가정은 화목해지고, 밝아지며, 좋은 습관들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남을 돕는 그런 문화도 가정에 깃들게 됩

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적 문화와 전통 습관, 성품과 기질이 자리잡으려면, 최소 3-4대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무척 잘해온 3-4대째 신앙의 전통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간혹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이며, 잘 순종하고, 성품이 무척 밝습니다. 구김살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백인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전통을 가진 기독교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미국 백인들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잘 웃고, 잘 베풁니다. 미국이 기독교 정신, 천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도 세속화가 되어, 기독교 정신을 떠나는 바람에 상황이 좋지 않지만, 미국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의 사랑과 화합을 중시하는 문화는 모두 기독교 정신에서 내려온 영적 흐름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끼리 대화할 때,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이 오가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3-4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정은 가정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신앙의 명문가정이라면,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후손이 나와야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모습과 존경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싹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란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 댁을 심방했습니다. 증손까지 6대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농장을 하셨는데, 농장을 시작하실 때, 전교인과 온 동네 분들을 모아 놓고, 지금 정원수를 몇 만 그루 심는데, 그 중에 만 그루는 키워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막상 돈이 되면, 그때 가서 마음을 바꿀까 봐, 자신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묘목이 자라, 큰 거부가 묘목을 2만여 그루를 한꺼번에 구입할 무렵, 서원한 대로 판 값을 하나님께 드려, 교회 성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모범적인 교회로 부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엄청나게 수확한 과일들과 야채들은 가족이 먹을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꿈, 어떤 비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두 딸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에게 들은 본 것을 그대로 할 것이니까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시기를 축복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 드립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기독교대학(AM),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업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I, 석사 I, 신학, 교육, 상담, 목회, 선교, 한국어 신학
- 석사 I 목회학, 목회학 원목심층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목회학, 한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I 목회학, 선교학석사, 선교학박사, 상담심리학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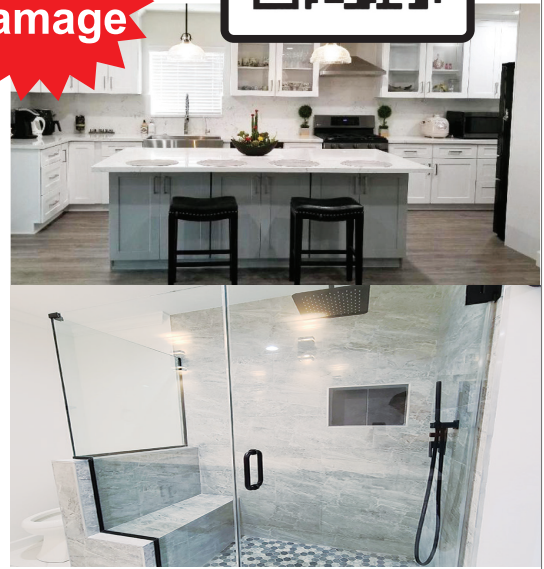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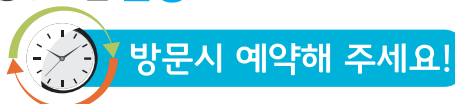


##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서울의 봄> (1)

# 영화 <서울의 봄>: 전두환 군사반란에 대한 단편적 평가의 문제

40대 이상은 정치 메시지에 호응  
20-30대 젊은 관객층 인기몰이?  
이야기 흥미롭고 연출 훌륭해서  
이들 정치적 견해 반영 결과 아냐

◆군사반란 이야기에 대한 대중의 반응: 카리스마 넘치는 간웅의 일대기에 호응하는 관객들

영화 <서울의 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을 집중 조명한 작품이다. 한국 영화로는 오랜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으며, 현재 천만 관객을 목표로 삼을 만큼 좋은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황정민·정우성·이성민 등이 주조연으로 등장하는 화려한 캐스팅, 잘 짜여진 서사 구조 덕분에 속도감과 긴박함이 적절하게 가미된 영화로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일부 보수 인사들이나 방송인들은 <서울의 봄>이 총선을 노린 좌파 선동 영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영화 흥행세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화의 소재와 내용, 연출 방식, 그리고 개봉 시점을 감안한다면 이 영화가 진보좌파 진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표로 제작되고 개봉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영화의 주

20-30대 관객에게도 어필하는 이유는 노골적인 정치색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김성수 감독이 보여준 의외의 출중한 연출력이 이 영화의 주된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진보좌파 진영에 우호적인 40대 이상 중장년층 관객들이 이 영화의 소재와 정치적 메시지에 호응한다면, 젊은 관객들은 이 작품의 서사와 그 연출 방식이 주는 '재미'에 집중하는 듯하다.

확실히 12·12 군사반란은 관객들 혹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소재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동일한 사건을 다룬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이 한국은 물론이고, 뜻밖에 일본에서도 대호평을 받으며 컬트적인 인기를 누렸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제5공화국>을 본 일본 시청자들은 10·26 사건과 뒤이어 벌어진 12·12 군사반란에서 기묘한 역사적 기시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 최고 영웅, 오다 노부나가가 측근 아케치 미쓰히데의 반란으로 혼노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뒤를 이어 전광석화 같은 조치로 노부나가 군을 장악하고 차기 지배자로 등극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을 떠올리는 듯하다.

이와 함께 <제5공화국>을 본 일본 시청자들은 대통령 암살과 군사반란 같은 정치격변이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바로 옆 나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당일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그려낸 영화, <서울의 봄>.

마 넘치는 한 명의 '간웅'으로 비쳐지는 듯하다. 최근 <서울의 봄>을 본 20-30대 관객들 역시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군사독재의 엄혹함을 경험했던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달리, 20-30대 관객들은 직접 군사독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

직접 군사독재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서울의 봄>이 과거의 아픔과 정치적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일깨우는 작품이라면,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과거의 흥미로운 정치투쟁을 보여주는 웰메이드 역사영화로 비쳐지고 있으며 그 덕분에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의 20-30대 관객의 눈으로 보기에 정중부의 무신의 난이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그리고 12·12 군사반란 같은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의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인 것이다. 젊은 관객층에서 <서울의 봄>이 인기를 얻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고 영화의 연출이 훌륭하기 때문이지, 이 영화의 메시지가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관통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군사반란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배경, 경과, 영향 모두에 대한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따라서 <서울의 봄>의 흥행 현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이 영화의 실제 정치적 영향보다는 영화 속에 묘사된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탐욕에 대한 관객의 이해와 호응일 것이다. <서울의 봄>은 군의 문민통제라는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역행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행위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군사반란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거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의 시각과 달리 한국사 전체 관점에서 군사반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 기준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군사반란을 절

대악 취급하는 것은 역사 이해에 있어 하나의 큰 오류를 초래한다. 왕권의 정통성과 안정을 극도로 중시하는 유교의 거두 맹자조차, 군주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는다면 역성혁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당장 한국사를 보더라도 고대부터 군사반란 없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고주몽, 왕건, 이성계 등 한국사의 창업군주 거의 모두는 군사반란을 통한 역성혁명을 통해 새 나라를 일으켰다. 과거 사료들은 이들이 무슨 구국의 결단을 위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의도에 구국의 결단 같은 것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들은 자신들의 일족과 가신, 그리고 정파의 생존을 위해, 또한 정치권력을 향한 무한한 탐욕과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사를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 창업군주들이 이룬 건국의 의미를 무턱대고 폄하하는 역사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런 군사반란의 의미를 역사적 진보의 방향과 정도라는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즉 군사반란이라는 단기적 사건 자체에만 시야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이후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려 하는 것이다.

12·12 군사반란 역시 길게 보면 이렇게 종합적인 관점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 방송영화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작자들 대다수가 진보좌파와 정치성향을 가진 탓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을 마치 절대악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서울의 봄> 역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성경 안에도 여러 군사반란 서사가 적혀 있다. 어떤 반란은 죄악으로 규정되지만, 어떤 반란은 그와 반대로 꼭 필요한 의거(義舉)로 평가되고 있다. 즉 각 군사반란의 배경, 의도, 그리고 귀결과 영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뜻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의 봄>은 단편적 시각에 입각해 12·12 군사반란을 바라보도록 연출돼 있다.

연이자 제일의 악역 전두환(전두환의 작중 성명, 황정민 분)은 오늘날 보수 정치계의 한 중요한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정당 계파의 우두머리였다. 이 영화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은 현 보수 여당의 역사적 치부를 드러내는 영화로서,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현재 보수 진영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이 영화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단 이 영화가 진보좌파 진영에 비교적 덜 우호적인

일어난 사실에 대해 상당한 흥미를 보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전국시대, 혹은 군국주의 일본제국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꽤 가까운 과거에 벌어진 사실에 큰 흥미를 보이면서,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에 대한 조롱의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본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에 묘사된 전두환에 대해 비교적 호감을 보였던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군사독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두환이 마치 조조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카리스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3 HYUNDAI Santa Fe SEL**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10,000 mile/year  
For 24 Months  
\$8,995 due at lease signing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7,500 Lease Cash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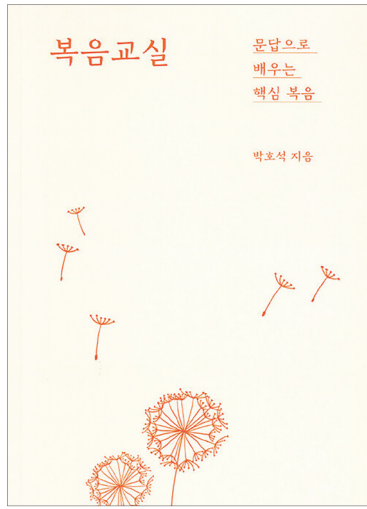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교회, 복음으로 양육하라]

# 설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복음교실

문답으로 배우는 핵심 복음

박호석 저

복음 교실: 문답으로 배우는 핵심 복음

박호석 | 크레도북스 | 36쪽 | 3,800원

성경 강해로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 출신의 저자가 오랫동안 전도와 새신자 교육, 복음 교육을 위해 사용해 온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정통 교리문답의 문답 형식(카테키즘)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문답이 되도록 하였고, 해당 답에 대한 핵심 성경구절을 병기함으로 교육 및 암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1대1 양육 교재, 새신자 교육용, 개인 성경 암송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전도와 양육의 교회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자기 백성이 당신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시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감정까지 변화시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도 자기 제자를 세우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로 삼는 사명을 위임하실 때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베드로 역시 유서와 같은 편지를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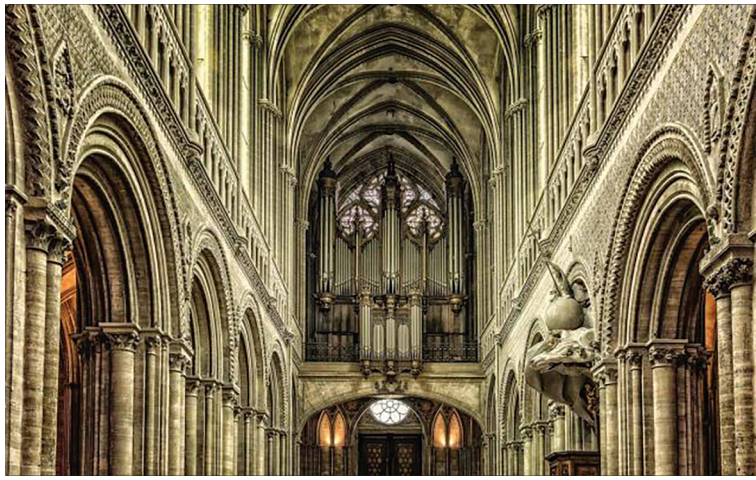
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모든 성도를 권면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그분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

목회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것은 ‘설교’가 일차적으로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주요 방편임에 틀림 없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주일에 한 번(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듣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신자에게 적용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는 종말은 무엇인지 등 골고루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회는 여러 생각과 견해를 가진 성도가 계속 모여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2014년 달라스신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호석 목사는, 지난 8년간 교회에서 직접 사용한 복음 교리 교재를 <복음 교실>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판했다. 문답식으로 정리된 이 책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인간·그리스도·믿음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이 책을 사용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적인 복음 교리로 든든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보통 신조를 다루는 책은 두껍고 내용이 어려우며,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용도보다는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고찰하게 하는 용도가 컸다. 그래서 ‘해설서’라는 말이 따로 붙는 책도 많이 제공된다.

하지만 이 책은 적은 분량이 말해주듯(36쪽), 주 목적이 핵심 교리의 교육과 훈련에 있다. 물론 모든 문답 항목에 관해 열띤 토론을 가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픽사베이

본문이 분명히 가르치는 핵심 교리를 알고 믿고 실천하게 하는 것에 유용하다.

가령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관한 해설은 ‘하나님은 (1)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이다. 그리고 지지하는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이다(11쪽). 어떤 사람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할 수도 있지만, 간단명료한 설명은 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사의 재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전달해야 할 핵심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제시한다는 면에서 이점이 있다. 또 보통의 문답이 길고 복잡한 해설에 각주로 참고 구절이 따라오는 방식인 반면, 복음 교실의 문답은 짧고 간단한 해설에 가장 그 교리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따라온다. 이는 자연스럽게 성경 중심 교리를 한눈에 알게 해주고, 쓸데없는 이론이 덧붙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한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회심 경험이 없는 목사가 적지 않다. 직분을 받는 장로나 집사 중 거듭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도 많다.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수많은 교리 공부가 있지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론 교육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실용주의적 교육으로 치우치기 쉽다.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복음 교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그래서 그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교육 아닌가? 지난 8년간 교회 현장에서 실질적 열매를 거둔 이 교재

를 통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까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간구한다.

조정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규장) ▲정철의 A.D. 영어학습법(두란노)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두란노) ▲순전한 기독교(홍성사)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넥서스 CROSS) ▲5가지 사랑의 언어(생명의말씀사)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규장)

두 곳에서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A.D. 영어학습법’, ‘하나님의 열심’, ‘여섯 걸음’이다. 주로 기도, 신앙생활에 대한 책들이 순위권에 들었다. 두 서점에서 공통으로 선정된 도서 중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 담임)가 집필했다. 이 책은 선교 현장과 목회 사역을 통해 쌓인 기도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한 저자의 고백이 담겨 있다.

여섯 걸음마다 한 번씩 살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전심의 예배’를 넘어 ‘특심의 예배’로 서길 원하는 원우경 목사는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부흥하는가’가 아닌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책 <여섯걸음>을 썼다.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30, 31, 32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sight of all nations;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the  
glory of your people Israel.  
LUKE 2:30, 31, 32

2023. 12. 20  
김영희

# 2024년 신년 축복 금식 성회

감사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영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년 말씀부흥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2024년 한 해를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축복의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 목사  
1~3일



김창곤 목사  
남가주 은혜선교교회 담임  
4일

일시 : 2024년 1월 1일(월)~4일(목) 저녁 7시  
장소 : 남가주 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문의 : T.(310)713-3006

### 말씀 및 본문

- 1월 1일(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히11:17-19)
- 1월 2일(화)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빌4:11-13)
- 1월 3일(수) 새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창29:31-35)
- 1월 4일(목)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43:19)

## 남가주 은혜선교교회

특별기고

# 몸의 주춧돌을 바로 세우자

제2의 심장이라는 발!

2%로 98%의 하중을 평생 지지하다보니 족저근막염, 관절염, 골반변형, 척추측만증, 목디스크, 무지외반, 허리디스크, 티눈, 굳은살 등등 발의 변형으로 생겨 고생하시는 분 참 많으시죠?

사람의 발은 평발, 보통 발(정상 아치), 높은 아치(까치발)까지 서로 다른 높이의 아치를 갖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아치라고 하는데 아치는 체중을 지탱하면서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해 힘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불리며 장기에 관한 모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발은 건강의 시작이며 발이 건강해야 많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발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시로 지압하며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아치가 평평하면 지면의 충격을 발이 모조



JGP 기능성 신발

리 흡수하고 분산하지 못해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지거나 통증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치는 너무 깊게 들어갈 경우 몸에 중심을 잡기 힘들뿐더러 자세가 틀어져 다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아치가 아닌 경우 몸의 균형이 무너져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JGP 신발은 가장 이상적인 각도 13도로 아치를 세워줍니다. 경혈지압효과를 주고 골반과 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며 허리의 힘이 바로 생기고 편안합니다. 발의 혈액순환을 돕고 에너지가 증진되어

몸의 주춧돌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제2의 심장인 발의 혈액순환을 돕고 에너지가 증진되어 몸의 주춧돌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JGP USA 대표 김병식: 213-330-6810

jgpshoe@gmail.com

3250 Olympic Blvd. #304 LA, CA 90006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연속 채택

유엔총회에서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전원동의(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은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이번이 19년째다. 이번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강

조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한 탈북민 강제 복송 사건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결의안은 탈북민과 관련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험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

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도 권고했다. 그러나 북한 측 대표는 이날 "결의안은 단순히 정치적 대립을 나타내는 문서"라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만들어 낸 사기 문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World Share USA 전쟁터를 섬긴다!



World Share USA는 우크라이나 장병들, 희생자들을 비롯해 이스라엘 사역자들을 돕고 있다.

국제 재난 현장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World Share USA(대표 강태광목사)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섬기고 있다. World Share USA는 흑한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장병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전쟁고아와 전쟁 미망인들 그리고 전투지역 주민들을 돌본다. 우크라이나 현장 사역자들에 의하면 전쟁의 공포는 물론이고 전기와 수도 시설이 파괴된 지역에서 흑한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라고 한다.

World Share USA는 담요 보내기 운동과 전쟁고아와 미망인 돌보기에 힘을 쓰고 있다. World Share USA는 이스라엘 분쟁의 현장을 누비는 사역자를 통해 이스라엘도 섬기고 있다.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을 누비며 이스라엘 군인들과 부상자 그리고 주민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바 시오니즘에 빠져 있는데 이들이 이 전쟁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다.

제네바 대학(Geneva Academy)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4곳에서 무력 충돌이 있고, 국가적 분쟁은 32개국인데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분쟁이다.

강태광 목사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너무 귀하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확전이 안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돌봐야 한다. 우리 민족이 6.25 동란을 겪을 때 달려와 우리 산하에서 싸워준 우방국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도와야 한다."라고 했다. World ShareUSA를 통해 전쟁터를 돕기 원하면 World Share USA(323 578 7933)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재활치료사  
추천신발



혁신적인 의학적 공학적  
디자인

# JGP

## 는 신발이 아닌 건강증진 신체교정 도구입니다!

힘이 없는 걸음걸이가 바로 걸어지고  
굽은 허리와 어깨가 활짝 펴지는  
신는 즉시 느끼는  
신비한 체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옆)

3250 Olympic Blvd. #304, Los Angeles, CA 90006

☎ (213)330-6810    📷 jgp\_health\_shoes | jgpshoe@gmail.com

# 홈쇼핑월드

## 크리스마스 깜짝 초대박 세일!!

세일 기간 | 2023년 12.20(수)-12.26(화)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WOW 크리스마스 원가이하 깜짝 초대박세일!!**

<p>옛날 <b>짱아찌</b> 각각 명이나물, 마늘종, 샐러리, 깻잎, 고추 <del>\$9.99</del> <b>\$4.99</b></p> 	<p>포더스킨 <b>마스크팩</b> 50장 <del>\$49.00</del> <b>\$30.00</b></p> 	<p>루네즈 <b>타이거 시카 크림</b> <del>\$24.99</del> <b>\$4.99</b></p> 	
<p>페이스 <b>마사지 롤러</b> <del>\$29.99</del> <b>\$4.99</b></p> 	<p>Immune-11 면역력 향상제품 60캡슐 <del>\$49.00</del> <b>\$10.00</b> <small>*1인 5병 한정</small></p> 	<p>몽크로스 <b>후라이팬 4구</b> 선물용 케이스 포함 <del>\$39.99</del> <b>\$19.99</b></p> 	<p>초고급 <b>물청소기</b> <del>\$79.99</del> <b>\$39.99</b></p> 

<p>몽크로스 <b>양모이불</b> Small <del>\$289.00</del> <del>\$189.00</del> <b>\$100.00</b></p> 	<p>몽크로스 <b>양모이불</b> Queen <del>\$319.00</del> <del>\$219.00</del> <b>\$120.00</b></p> 	<p>몽크로스 <b>양모이불</b> King <del>\$349.00</del> <del>\$249.00</del> <b>\$140.00</b></p> 
---	--	--

**크리스마스 선물 깜짝 초대박 세일!!**

<p>자연향기 <b>명란김</b> 12봉 <del>\$9.99</del> <b>\$5.99</b></p> 	<p>지리산 떡방앗간 <b>앙꼬절편</b> 400g <del>\$9.99</del> <b>\$6.99</b></p> 	<p>지리산 떡방앗간 <b>호박찰떡</b> 400g <del>\$9.99</del> <b>\$6.99</b></p> 	<p>지리산 떡방앗간 <b>팔앙금떡</b> 400g <del>\$9.99</del> <b>\$6.99</b></p> 
--	--	--	--

<p>지리산 떡방앗간 <b>앙꼬절편</b> 400g <del>\$9.99</del> <b>\$6.99</b></p> 	<p>참기름 들기름 각각 300ml <del>\$29.99</del> <b>\$12.99</b></p> 	<p>강원도 <b>황태국</b> 8봉지 <del>\$19.99</del> <b>\$12.99</b></p> 
--	--	---

<p>소백코리아 <b>홍삼절편</b> 10봉 <del>\$54.99</del> <b>\$24.99</b> <small>*1인 3박스 한정</small></p> 	<p>종근당 일품 <b>6년근 홍삼</b> (30포) 1개월분 <del>\$99.00</del> <del>\$89.00</del> <b>\$25.00</b></p> 	<p>몽크로스 <b>헤어 드라이기</b> <del>\$259.00</del> <del>\$129.00</del> <b>\$99.00</b> 62% 반값 이하 세일</p> 
--	--	--

\*광고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